

광주FC “ACLE 참가 예산 10억 삭감 유감”

광주시의회가 프로축구 K리그1 광주 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예산 1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구단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일 광주FC 대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광주FC ACLE 참가 지원금 10억6천7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했던 것은 광주FC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북돋는 일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이라며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지, 도움을 주지 않는 시의회의 결정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시가 광주FC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00억원 규모다.

구단 측은 외국인 선수 영입, ACLE 진출료 인한 해외 체류 비용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3년 24억원, 올해에는 3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광주FC는 올해 초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내는 바람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5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FC만 이달 말까지 올해 가결산과 내년 예산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12월로 예정된 재무위원회에서 광주FC가 낸 예산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프로축구연맹은 인건비 상한선을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여름에 이어 겨울 이적시장에서도 전력 보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광주FC 측은 “지난해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직후 ACLE 진출이 확정됐고 비용 40억원 중 10억원의 지원을

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광주FC가 아무런 협의 없이 지출부터 한 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전해달라는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 상임위 단계에서 삭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명진 교육문화의위원회장은 “지난해 말 ACLE 진출이 확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 심의 때라도 예산안을 낼 수 있었다”며 “이번 추경 지원 요구는 구단 재정난 해소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1 3위를 기록하며 창단 후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을 확정했다. 지난 달 광주 홈경기장에서 열린 요코하마전과 일본 원정 경기인 가와사키전, 용인에서 치른 조호르전까지 3연승을 기록한 뒤 지난 5일 일본에서 열린 고베전에서 첫 패배했다.

광주FC는 오는 27일 홈구장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와의 5차전을 치른다. /박선강기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전력 자급률에 기초해야

도, 전문가 전략회의서 영향 분석·설계 방안 논의

내년 도입을 앞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놓고 지리적 인접성보다는 전력 자급률에 기초해 차등화를 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남도는 21일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에 전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남에 유리한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순형 동산대 교수, 이재형 목포대 교수 등이 참석해 기관별 의견과 전남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 2025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도매가격 시장에서 전력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하고 2026년부터 한국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전

기를 판매하는 소매요금 시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발전소를 이전하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같은 전력다소비 기업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도매요금 적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로 크게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순형 동산대 교수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할 경우 분할 단위가 넓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력자급률이 높은 전남 이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지리적 인접성 기준에서 벗어나 전국 사·도를 전력 자급률에 기준으로 전남을 비롯한 상위권·중위권·하위권으로 구분해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도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이룰 기회”라며 “전력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전기요금 차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여가는 차등요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안이 설계되도록 자급률이 높은 사·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도, 법령 위반 측량업체 15곳 적발

등록 기준 미달 등 행정처분

전남도는 21일 “지난 9월부터 공공·일반측량 2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일반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측량장비의 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 검사 여부, 기타 위반사항 등 측량업 실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2건, 등록사항 변경신고(소재지·기술인력 등) 지연 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2개 업체는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소재지, 기술인

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7개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개 업체도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했다.

김승재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과 장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기차 화재 진압훈련 2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에서 열린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발생을 가정한 질식소화 덮개와 임시소조를 설치 한 후 화재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원 지급 구례쌀 10t 첫 미국 수출길

5개 차지구 농업인 1만103명

광주시는 21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하고 대상자 1만103명의 농업인에게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부정수급 단속 등을 통해 1만103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천978가구 26억 원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8천125명 76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돼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2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공익직불금 대상자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 단가는 비진흥 논 80% 수준까지 상향될 계획이어서 농업인 소득 안정감이 더욱 강화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공익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가 경영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전남 구례쌀이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전남도는 21일 “전남 구례농협미국종합처리장(PC)에서 김순호 구례군수, 이성재 NH농협 구례군지부장, 신상원 구례군의회 의원, 노성원 구례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쌀(품종 새청무) 첫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례쌀은 10t(약 2천만 원 상당)으로 지난 11일 체결된 김씨마켓과 구례군 농수특산물 유통채널 다양화를 위한 수출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20kg 단위로 포장된 구례쌀은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김씨마켓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정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등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합병 및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효명씨에스(갑)은 2024년 11월 18일, 주식회사 세원씨앤디(을)는 2024년 11월 18일 개최한 각각의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을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을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갑: 주식회사 효명씨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807호

을: 주식회사 세원씨앤디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510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를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